

■ '신종 코로나' 여파 / "취약계층·노년층은 더 힘들다"

‘한끼 식사’ 무료급식도 차질

서귀포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내주 폐쇄... 도시락 검토 매일올레시장서 화요일 운영 예정 '사랑의 밥차'도 연기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취약계층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도 차질을 빚고 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 다수가 한 공간에서 모여 식사하는 데 따른 감염병 우려 등이 우려인데, 따뜻한 한끼 식사를 기다리는 취약계층 노인들이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총출동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서귀포시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르면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지하에서 매주 월·수·금요일마다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중인 경로식당을 이번주까지만 운영하고 다음주부터는 폐쇄할 예정이다.

경로식당에는 하루평균 등록 노인 250명 정도가 찾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은

경로식당을 폐쇄할 경우 결식 노인이 생길 것을 우려해 스테인리스 도시락을 구입해서 밥과 반찬을 만들어 담아 희망하는 노인들이 받아가서 집에서 식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서귀포시 관련부서와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이달 5일과 7일 식당을 찾은 등록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이용 신청서를 받고 있고, 도시락 구입을 마치는대로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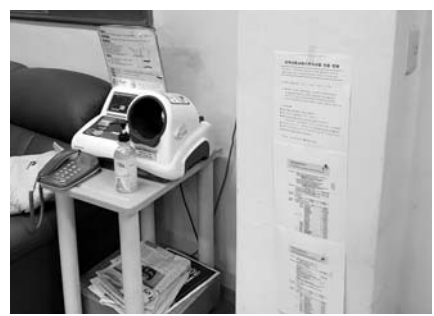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이번주 들어서는 노인들이 건강을 염려해서인지 식당을 찾은 이들이 하루 180명정도도 평소보다 많이 감소했다"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 여럿이 종전처럼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도시락을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을 서귀포시와 적극 협의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가 당초 4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운영할 계획이던 '참! 좋은 사랑의 밥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잠정 연기했다.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밥차로 개조한 트럭과 매해 운영경비를 지원받아 2012년부터 꾸준히 운영해온 사랑의 밥차를 올해는 이번주부터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시기 연기를 결정했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매주 한 차례 250~300인분의 식사를 차려냈는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시작시기를 잠정 연기했다"며 "해마다 이맘때쯤부터 급식이 시작됐던 터라 언제부터 식사를 할 수 있느냐는 문의전화도 걸려오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사랑의 밥차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도내 경로당, 문 닫거나 썰렁...

어르신들 "신종 코로나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다" 행정 차원 노인 위한 보건교육 등 대책 필요



경로당 내 한 곳에 비치된 손소독제.

면역력이 낮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책이 부실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찾은 제주시내 한 경로당에는 4~5명의 노인들이 앉아 쉬고 있었다. 경로당 구석 책상 위에는 손 소독제 2개가 덩그러니 방치돼 있었으며, 마스크는 따로 비치되지 않았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노인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제주시내 또 다른 경로당 한편에는 손 소독제가 비치돼 있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지 새것과 다름없었다. 이날 찾은 8곳의 경로당 중 두 곳은 문이 잠겨있었으며, 문은 열었으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로당도 있었다.

한 경로당 관계자 이모(82)씨는 "TV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잘 모르겠다"며 "지난주에 동주민센터에서 손 소독제를 줘서 비치해놨지만 솔직히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 등에 따르면 제주도내 경로당 현황은 제주시 295곳, 서귀포시 149곳으로 총 444곳이며,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 수는 4만 5000명을 웃돌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달 28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내 경로당 등

에 손 소독제와 예방 준수관련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경로당의 평균 나이가 75세 이상 고령의 노인인 탓에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예방 수칙 등이 잘 지켜지지 않아 행정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46)씨는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은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포스터 등의 홍보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며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보건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경로당에 손 소독제와 리플릿을 배부하며 예방수칙 교육도 병행했다"며 "지역 내 경로당에 운영 자재 문서를 보내 단체 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자제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제주도 제공

교육현장 개학 앞뒤편 마스크 확보 분주

도교육청 비축 물량 1만2000개 중 5000개 소진... "추가 구매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교육 당국에도 마스크 확보가 발등의 불이 됐다.

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교육청이 비축하고 있는 방역 물품은 마스크 7000개, 소독티슈 400개 가량이다. 마스크의 경우 기존 보유 물량이 1만2000개였지만 절반 가까이 줄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서 마스크 수요가 늘면서 비축 물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방역 물품 추가 확보에 나섰다. 우선 방학 기간인 이달 중에 예상되는 긴급 지원 수요를

고려해 마스크 1만 5000개와 손 소독제 500개를 추가로 비축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5일) 예산 부서와 협의해 마스크 등을 추가로 구매할 뒤 소진된 물량을 보충할 예정"이라며 "(마스크 수요가 늘면) 물량 확보가 전쟁이다 보니 한꺼번에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어 미리 예약해 둔 업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 비축 중인 마스크 물량도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의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을 보면 각급 학교는 일회용 또는 방역용 마스크를 구매·비축해

야 하는데 일회용의 경우 보건실엔 학생 10명 당 3개, 교실엔 1곳 당 20개를 비축할 것이 권장된다. 인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초·중·고는 전체 인원에 비해 마스크를 미리 갖추도록 돼 있다.

마스크를 여유 있게 확보해 둔 학교에서도 3월 개학 이후가 걱정이다. 제주시내 한 학교 관계자는 "현재 마스크 1800개를 비축하고 있어 학생 수(160여명) 등을 기준으로 여유가 있다"며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개학 이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차후 교육청과 협의해 부족 분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자' 이어 이번엔 '죽' 원 지사 또 선거법 논란

원회록 제주도지사가 피자에 이어 이번엔 '죽' 때문에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 12일 유튜브에 개설한 '원지사TV'에 업로드한 동영상 콘텐츠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동영상에서 원 지사는 '제주특산물 흡소포 MD 원회통입니다'라는 콘셉트로 방송을 진행, 도내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원 지사가

직접 성계죽을 먹으며 홍보에 나섰고, 준비된 영양식 10개를 모두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선관위는 원 지사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가 나선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어렵다"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 혹은 선관위 내부에서 주의·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세관 공무원 벌금 50만원·징역 1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세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개월과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18일 B항공 지방조사업자 직원 C씨로부터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37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제공받은 향응은 직무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도정 소식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행복주택(총402세대) 입주자 모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 수칙
주요증상 및 행동수칙
한마공신 김민일의 유물을 찾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 우수 및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안내

서귀포시정 소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예방을 위한 행사 취소 알림
2020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지원사업 안내
2020년 소규모강좌이동권 추가모집 알림
제기 서귀포시 주민자치대학 신임생 모집 알림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